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 2026년 07월 01일

HANA Global Weekly



하나 하나증권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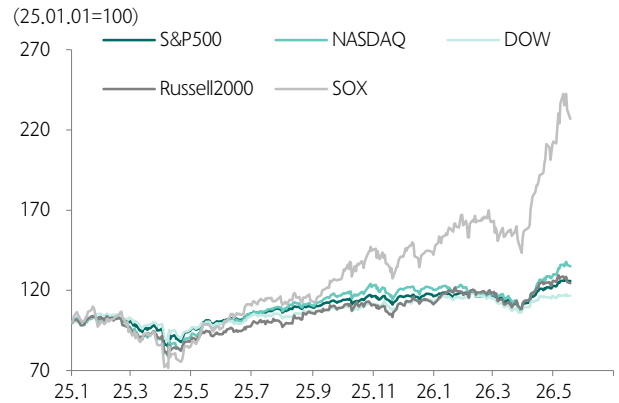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증시 동향

- 미국 증시는 반도체 업종 변동성 확대와 과도한 AI 투자로 인한 잉여 현금 흐름 악화 우려, 차익실현 매물이 겹친 조정으로 하락세를 보였음
- 마이크론의 호실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애플을 비롯한 하드웨어 기업들이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마진 압박 우려에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
- AI 관련주의 고평가와 수익률 및 전방 산업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로 약세를 보이던 증시가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반등하여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 52,000선을 돌파하며 강세 마감

종가 기준일: 2026.06.29

미국 주요 지표 그래프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종가 (pt)	1D (%)	1W (%)	1M (%)	YTD (%)
지수	S&P500	7,440.4	1.2	(0.4)	(1.8)	8.7
	NASDAQ	25,820.1	2.1	(1.3)	(4.3)	11.1
	DOW	52,182.7	0.6	0.9	2.3	8.6
	Russell2000	3,010.4	0.0	0.2	3.1	21.3
	SOX	13,709.7	3.8	(6.3)	6.9	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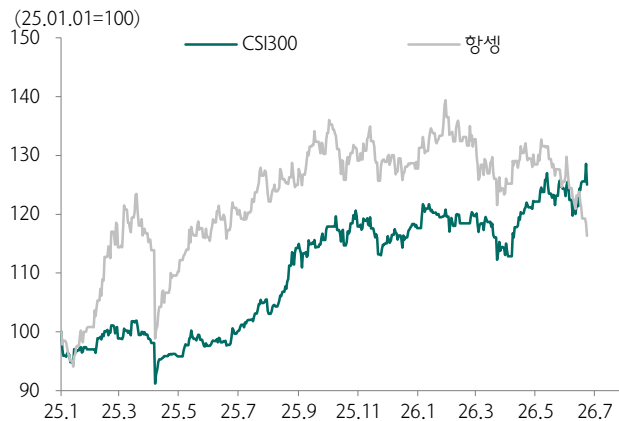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중국 증시 동향

- 중화권 증시는 과장 50지수가 YTD +64%로 가장 높은 수익률 기록. 업종별로는 반도체, H/W, 전자재 등 업종이 아웃퍼폼한 반면, 소비자서비스, 소비재 등 업종이 언더퍼폼
- 하반기 주가는 경제와 산업 성장의 K자형 패턴을 계속 투영하며, '수출-첨단제조-에너지-서비스' 등 특정 분야 주도 실적장세 연장될 전망. 다만 3분기 대외 환경과 정책 동기 측면에서 중국 매크로와 부양책 배당은 여전히 시기상조이고, 가격 상승 분야와 실적/공급 이벤트를 먼저 주목. 7-8월 실적 시즌은 수출 밸류체인, 반내권, 서비스업 분야의 서프라이즈 기대. 3분기 실적 및 수급 우위를 가진 ChiNext, 과장50 주목

종가 기준일 : 2026.06.30

중국 주요 지표 그래프



자료: Wind, 하나증권

		종가 (pt)	1D (%)	1W (%)	1M (%)	YTD (%)
지수	CSI300	4,979.4	1.1	1.2	1.8	26.5
	항성	22,881.0	(0.6)	(2.0)	(9.1)	14.1

자료: Wind, 하나증권

다음주 주요 이벤트 및 관전 포인트

	날짜	시간	중요도	관전 포인트
삼성전자 2분기 잠정실적 공개	7/7	08:00	★★	2분기 매출액 179조원, 영업이익 92조원 전망
NATO 정상회의	7/7~8	17:00	★★	걸프 4개국 초청으로 남부전선 강화 움직임 주목
미 USTR 대체 관세 부과 공청회	7/7	23:00	★★	관세 만료 앞두고 대체 관세(무역법 301 조) 검토
6월 FOMC 의사록 공개	7/9	03:00	★★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3.50%~3.75%로 동결

자료: 블룸버그, 하나증권

투자 유망 ETF

SMH (VanEck Semiconductor ETF)	DRAM (Roundhill Memory ETF)	AIRR (First Trust RBA American Industrial Renaissance ETF)	SPHQ (Invesco S&P 500 Quality ETF)
MADE (iShares US Manufacturing ETF)	PAVE (Global X 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F)	QGRO (American Century US Quality Growth)	VCIT (Vanguard Intermediate-Term Corporate Bond ETF)

투자 유망 종목

알파벳 (GOOGL.US)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US)	AMD (AMD.US)	램 리서치 (LRCX.US)	캐터필러 (CAT.US)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CRWD.US)	블룸 에너지 (BE.US)	루멘텀 홀딩스 (LITE.US)	즈푸시 (2513.HK)	비런테크 (6082.HK)

실적 발표

기업명	티커	발표 날짜	컨센
나이키	NKE	6월 30일 장후	FY26 4분기 매출 108.5억, EPS 0.12 달러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STZ	6월 30일 장후	FY26 1분기 매출 23.9억, EPS 3.19 달러
제너럴 밀스	GIS	7월 1일 장전	FY26 4분기 매출 45.8억, EPS 0.80 달러

금주의 리포트

기업/산업명	제목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트럼프의 올여겨자(풍력) 먹기
중국 반도체	하반기 중국 반도체 업종 투자전략
유니트리	공격적인 저가 전략은 휴먼노이드에서도 통할까?

글로벌 섹터별 트렌드_선진국

(단위 : %, 밸류에이션 지표 제외)

	증가추이					EPS					PER(12M fwd)						PBR(12M fwd)						Comment		
	1W (%)	1M (%)	3M (%)	1Y (%)	YTD (%)	1W (%)	1M (%)	3M (%)	1Y (%)	YTD (%)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세계	0.5	-1.7	13.6	21.2	9.6	0.0	0.1	0.5	1.3	0.9	17.4	17.5	18.2	16.9	18.8	19.7	14.9	3.3	3.3	3.4	3.0	3.0	3.4	2.3	
에너지	-2.1	-6.1	-13.1	22.8	15.3	-0.1	-0.3	1.5	2.7	2.8	11.3	11.4	11.6	15.6	13.2	17.6	8.9	1.7	1.7	1.8	2.1	1.6	2.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정보기술, 건강관리, 산업재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에너지, 소재
소재	-1.7	-7.0	-0.8	23.4	5.1	-0.1	0.0	0.4	2.1	1.3	14.3	14.3	15.3	15.1	16.2	17.7	13.1	2.2	2.2	2.3	2.2	1.8	2.5	1.6	
산업재	0.8	0.9	10.7	20.0	13.1	0.0	0.0	0.2	0.5	0.4	22.5	22.5	22.6	21.7	21.5	24.6	15.8	4.0	4.1	4.1	3.7	3.5	4.2	2.5	
자유소비재	2.5	-5.2	6.3	2.7	-5.5	-0.0	0.0	0.1	0.2	0.0	19.9	19.8	21.5	19.5	20.6	22.9	16.2	3.2	3.2	3.4	3.2	3.4	3.8	2.8	
필수소비재	1.0	1.8	2.1	3.3	5.0	0.0	-0.0	0.0	0.2	0.1	19.7	19.5	19.2	19.3	19.7	21.1	17.1	4.4	4.3	4.2	4.2	4.1	4.6	3.5	
건강관리	5.0	5.7	7.2	14.8	1.7	0.0	0.0	0.1	0.1	0.1	18.3	17.5	17.4	17.3	16.2	20.2	15.7	4.1	3.9	3.9	3.8	3.6	4.3	3.4	
금융	-0.6	3.0	10.2	11.5	2.3	0.0	0.0	0.2	1.1	0.5	12.9	13.0	12.6	12.0	13.4	13.7	9.8	1.7	1.8	1.7	1.6	1.7	1.8	1.2	
정보기술	-0.4	-3.8	35.5	46.1	26.3	0.1	0.4	1.1	2.6	1.8	19.5	20.4	22.1	18.4	27.2	29.6	17.9	7.4	7.6	8.1	6.3	7.4	8.5	5.4	
커뮤니케이션	0.7	-7.5	5.6	11.8	-2.8	-0.1	0.0	0.4	0.9	0.6	17.3	17.4	19.2	18.2	18.9	21.2	15.3	3.4	3.4	3.8	3.4	3.7	4.0	2.3	
유틸리티	1.7	2.1	0.1	14.6	8.0	-0.0	-0.1	-0.0	0.3	0.1	17.0	16.7	16.3	16.9	15.7	17.5	12.5	1.9	1.9	1.8	1.9	1.8	2.0	1.4	
미국	-0.4	-1.8	13.7	19.8	8.5	0.1	0.1	0.4	1.2	0.7	20.0	20.2	21.1	19.3	22.1	22.9	17.2	4.5	4.6	4.7	4.2	4.5	4.8	3.3	
에너지	-1.2	-4.6	-12.1	26.0	18.9	-0.1	-0.3	1.5	2.3	2.4	13.4	13.5	13.5	18.8	15.3	21.1	10.3	2.2	2.2	2.2	2.6	2.0	2.6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정보기술, 산업재, 건강관리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에너지, 소재
소재	-3.4	-4.8	-3.1	20.1	5.2	-0.0	0.1	0.5	2.2	1.3	15.8	15.6	16.5	17.3	19.7	21.4	15.2	2.7	2.7	2.9	2.9	2.5	3.3	2.0	
산업재	0.2	4.6	12.6	22.1	17.6	0.1	0.1	0.2	0.5	0.3	26.1	26.2	25.7	24.9	24.7	27.8	17.7	6.6	6.6	6.4	6.0	6.0	6.8	4.2	
자유소비재	2.3	-4.7	8.8	7.4	-1.8	0.0	0.1	0.2	0.6	0.3	23.8	23.7	25.9	23.6	26.5	30.1	21.0	6.2	6.2	6.8	6.1	7.6	8.8	5.9	
필수소비재	1.8	1.7	1.3	5.1	8.6	0.0	0.0	0.1	0.2	0.2	22.1	22.0	21.7	22.1	22.0	24.0	17.5	6.2	6.2	6.0	6.1	6.1	6.6	4.7	
건강관리	7.1	7.7	9.5	18.6	3.4	0.0	0.1	0.1	0.1	0.1	19.0	18.1	17.9	17.6	16.4	20.3	15.8	4.7	4.4	4.4	4.3	4.1	4.9	3.8	
금융	0.1	4.4	10.5	6.5	0.1	0.0	0.1	0.2	1.0	0.4	15.0	15.1	14.6	14.0	16.6	17.0	11.7	2.2	2.2	2.1	2.0	2.2	2.3	1.5	
정보기술	-3.6	-5.4	28.5	32.5	16.0	0.2	0.3	0.6	1.9	1.2	22.1	23.3	25.6	20.3	30.2	32.3	19.5	9.1	9.5	10.4	8.1	10.5	11.5	7.4	
커뮤니케이션	0.7	-7.8	8.1	19.7	0.1	-0.1	0.0	0.5	0.9	0.7	18.1	18.3	20.4	19.0	19.0	22.4	15.4	4.0	4.1	4.5	4.1	4.2	4.8	2.8	
유틸리티	2.9	3.8	0.5	12.6	7.8	0.0	0.1	0.2	0.5	0.3	18.7	18.3	18.1	19.1	18.2	20.0	14.1	2.1	2.1	2.0	2.1	2.1	2.3	1.5	
일본	-0.7	1.2	16.0	41.9	18.4	0.0	0.3	0.6	1.4	0.9	17.3	17.4	18.1	16.5	16.0	19.1	12.3	1.9	1.9	1.9	1.7	1.5	2.0	1.1	
에너지	-4.2	-9.3	-22.6	60.7	6.0	-0.1	-1.3	-0.8	6.8	3.7	8.0	8.3	8.0	9.7	10.8	13.9	6.2	0.8	0.8	0.9	1.1	0.6	1.1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유틸리티, 건강관리, 소재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에너지, 금융
소재	-3.3	-6.3	6.7	37.2	20.9	0.0	0.1	0.5	0.5	0.4	17.4	18.1	19.0	17.7	13.8	19.8	10.4	1.5	1.5	1.4	1.3	1.0	1.6	0.8	
산업재	-2.4	-5.2	3.1	36.9	10.2	0.0	0.2	0.4	0.9	0.7	18.1	18.6	19.6	19.0	15.8	22.1	11.6	1.9	2.1	2.1	2.0	1.6	2.3	1.2	
자유소비재	2.5	-2.1	7.5	19.2	1.2	0.0	0.4	0.2	1.0	-0.0	16.6	16.3	18.2	15.9	16.7	18.3	10.1	1.4	1.3	1.5	1.3	1.2	1.6	1.0	
필수소비재	3.7	3.6	-0.1	7.7	-0.0	0.0	0.0	0.1	0.5	0.1	20.6	19.9	20.1	21.2	21.2	22.9	18.2	2.0	2.0	1.9	2.0	1.9	2.2	1.6	
건강관리	1.6	-3.5	-6.2	11.4	-0.8	0.0	-0.4	-0.3	0.0	-0.1	18.2	18.0	17.6	18.2	16.4	23.4	15.2	2.1	2.0	2.1	2.2	2.0	2.5	1.8	
금융	-2.1	5.4	18.7	58.7	26.3	-0.0	0.3	0.6	2.1	0.9	13.1	13.4	12.9	12.0	11.3	14.5	8.5	1.4	1.4	1.4	1.2	1.0	1.4	0.7	
정보기술	-0.1	16.5	77.3	114.9	73.9	0.0	0.9	1.4	2.2	2.0	23.7	23.8	26.1	19.8	22.9	28.5	16.5	4.8	4.8	4.3	3.0	2.6	5.2	1.8	
커뮤니케이션	-3.4	-11.1	11.6	4.9	-0.7	-0.1	0.1	1.1	1.4	1.4	17.9	18.2	20.7	19.9	22.8	28.3	16.2	2.1	2.2	2.4	2.1	2.9	3.4	1.5	
유틸리티	1.7	0.3	-7.6	44.1	3.7	0.2	0.2	0.7	0.0	1.3	12.1	12.1	12.3	14.3	8.4	16.0	5.9	0.9	0.8	0.9	1.0	0.7	1.0	0.5	
유럽	0.4	2.0	9.5	17.8	7.8	0.0	0.1	0.3	0.8	0.5	15.3	15.2	15.1	14.6	14.8	16.3	11.6	2.3	2.3	2.2	2.1	2.0	2.3	1.6	
에너지	-3.4	-7.6	-17.0	27.1	16.9	-0.0	0.1	2.4	4.5	4.5	8.1	8.4	8.8	12.1	10.0	13.1	6.8	1.2	1.3	1.4	1.6	1.2	1.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필수소비재, 자유소비재, 정보기술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유틸리티
소재	-1.5	-4.7	4.6	20.2	10.0	0.0	0.3	0.5	1.3	1.0	15.8	15.8	16.9	16.2	16.0	17.9	11.9	2.0	2.0	2.1	1.9	1.6	2.1	1.4	
산업재	-0.7	-0.2	10.3	14.6	8.0	0.0	0.1	0.1	0.5	0.3	22.1	22.4	22.5	20.8	21.5	24.3	15.3	4.0	4.0	4.0	3.6	3.6	4.2	2.6	
자유소비재	1.6	1.0	9.6	-2.0	-10.6	0.0	0.1	0.1	-0.2	-0.2	15.1	14.9	15.1	13.9	14.9	17.3	10.9	1.6	1.6	1.6	1.5	1.7	1.9	1.4	
필수소비재	3.2	5.3	6.7	5.6	3.6	0.0	-0.1	-0.0	0.2	0.1	16.0	15.6	15.1	15.0	15.7	17.6	14.6	3.1	3.0	2.9	2.9	2.8	3.3	2.6	
건강관리	3.2	4.4	4.9	14.8	2.2	0.0	0.1	0.2	0.2	0.2	16.0	15.6	15.6	15.7	14.4	18.9	13.1	3.4	3.3	3.3	3.3	2.8	3.8	2.6	
금융	-0.8	4.5	14.9	26.6	6.7	0.0	0.1	0.3	1.4	0.7	11.3	11.4	11.0	10.2	10.6	11.8	7.7	1.6	1.6	1.5	1.4	1.3	1.6	0.9	
정보기술	0.7	4.9	38.5	50.3	41.7	0.0	0.1	0.3	0.6	0.6	32.4	32.9	32.2	26.4	27.4	34.5	19.0	6.5	6.6	6.4	5.1	4.9	6.9	3.5	
커뮤니케이션	-1.5	-6.1	-6.3	-14.0	-3.2	-0.0	-0.1	-0.0	0.5	0.1	15.6	15.6	16.1	16.3	19.3	19.7	12.6	2.0	2.0	2.1	2.1	2.2	2.2	1.2	
유틸리티	2.0	4.7	2.5	27.2	15.8	-0.0	-0.2	-0.0	0.5	0.1	15.9	15.7	14.9	15.5	13.7	16.2	11.1	2.0	2.0	1.8	1.9	1.6	2.0	1.4	

글로벌 섹터별 트렌드_신흥국

(단위 : %, 밸류에이션 지표 제외)

	증가추이					EPS					PER(12M fwd)						PBR(12M fwd)						Comment		
	1W (%)	1M (%)	3M (%)	1Y (%)	YTD (%)	1W (%)	1M (%)	3M (%)	1Y (%)	YTD (%)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신흥국	-1.5	-2.6	22.2	39.6	21.5	0.0	0.3	1.6	3.2	2.6	11.3	11.5	12.0	11.3	12.7	14.1	10.9	2.1	2.1	2.2	1.8	1.7	2.2	1.4	
에너지	-2.0	-8.4	-10.3	3.7	-1.1	-0.1	-0.2	0.9	2.2	3.0	8.5	8.6	9.1	10.3	10.1	11.9	7.3	1.2	1.2	1.3	1.3	1.2	1.4	1.0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정보기술, 산업재, 금융
소재	-3.1	-10.5	-5.9	29.2	-5.3	-0.2	0.1	0.6	3.9	2.4	10.0	10.1	11.3	11.2	12.6	14.5	9.8	1.7	1.7	1.9	1.8	1.4	2.2	1.0	
산업재	-1.8	-2.9	17.9	30.9	18.7	0.1	0.4	1.2	2.1	2.0	13.7	14.2	15.0	14.0	14.8	17.7	11.1	2.2	2.2	2.4	2.0	1.7	2.6	0.7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소재, 자유소비재, 에너지
자유소비재	-2.2	-14.1	-10.4	-15.0	-21.0	-0.1	-0.0	-0.3	-1.3	-0.6	12.0	12.4	14.2	13.2	12.3	16.1	10.8	1.4	1.4	1.6	1.7	1.8	2.2	1.3	
필수소비재	0.9	-2.4	-1.8	-8.2	-6.2	-0.0	0.0	-0.2	-0.1	0.0	17.2	17.2	17.9	17.0	18.6	21.0	16.4	3.0	3.0	3.1	3.1	3.0	3.3	2.4	
건강관리	6.0	0.9	1.8	-0.0	-2.5	-0.0	-0.0	0.1	0.2	0.2	24.4	24.0	25.0	25.4	26.9	30.5	22.7	3.2	3.1	3.3	3.3	3.2	3.9	2.5	
금융	-1.4	2.0	6.0	7.0	1.6	0.0	-0.1	0.2	1.0	0.5	9.1	9.3	8.9	8.8	9.4	9.9	7.1	1.1	1.1	1.1	1.1	1.1	1.2	0.9	
정보기술	-2.1	-0.8	68.9	153.5	87.5	0.1	0.6	3.2	6.0	5.0	11.7	12.1	12.7	11.0	15.0	18.8	10.6	4.4	4.5	4.6	3.2	2.6	4.8	2.1	
커뮤니케이션	0.7	-2.7	-5.8	-11.7	-20.4	-0.0	-0.0	0.1	0.8	0.1	12.8	12.9	13.3	14.1	16.5	19.1	12.8	2.0	2.1	2.1	2.2	2.8	3.0	1.9	
유틸리티	-0.6	-3.7	-1.1	4.8	2.5	-0.0	-0.4	-0.7	-0.1	-0.8	12.4	12.5	12.4	11.5	11.8	13.6	9.7	1.4	1.4	1.4	1.3	1.3	1.5	1.0	
중국	-1.5	-7.6	-7.6	-6.9	-15.3	-0.0	-0.1	0.1	0.3	0.1	9.9	10.2	10.8	11.0	11.2	13.6	8.0	1.1	1.2	1.2	1.3	1.4	1.6	0.9	
에너지	-3.2	-13.1	-13.2	24.1	4.8	-0.1	0.3	1.1	2.0	2.2	8.5	8.7	10.1	10.9	8.3	12.2	5.6	0.9	0.9	1.0	1.0	0.8	1.1	0.7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산업재, 금융, 정보기술
소재	-5.4	-12.9	-17.2	40.5	-17.5	-0.0	0.0	1.3	4.8	3.1	8.6	9.2	10.0	11.8	10.6	16.8	8.6	1.6	1.7	1.8	2.0	1.3	2.7	0.9	
산업재	-2.6	-8.2	-1.9	15.8	0.8	0.0	-0.1	-0.1	-0.4	0.1	11.7	12.1	12.6	11.8	9.7	13.3	6.8	1.2	1.2	1.3	1.2	0.9	1.4	0.7	
자유소비재	-3.6	-16.2	-20.4	-24.5	-29.5	-0.0	0.0	-0.3	-2.0	-0.8	10.9	11.6	13.4	13.6	12.1	17.8	10.0	1.2	1.3	1.5	1.8	1.9	2.5	1.2	
필수소비재	1.1	-8.4	-15.6	-18.3	-17.8	-0.0	0.1	-0.1	-0.1	-0.2	13.2	13.4	14.9	15.9	16.5	21.3	12.8	2.2	2.2	2.4	2.7	2.9	3.7	2.2	
건강관리	8.0	-2.2	-6.6	4.2	-4.6	-0.0	-0.0	0.0	0.6	0.4	21.2	20.9	22.9	24.3	25.4	32.2	18.9	2.5	2.5	2.7	2.9	2.7	3.6	1.7	
금융	-4.3	-3.9	-2.8	0.7	-4.3	0.0	-0.3	0.2	2.1	0.8	5.5	5.8	5.7	5.8	6.2	6.5	3.6	0.6	0.6	0.6	0.6	0.6	0.6	0.4	
정보기술	1.7	2.4	32.2	11.2	17.7	-0.0	0.0	0.4	-0.1	-0.2	28.8	28.4	28.4	24.7	25.4	30.3	12.8	3.5	3.4	3.4	2.8	3.4	4.0	1.3	
커뮤니케이션	1.5	-3.1	-10.1	-16.4	-28.2	-0.0	0.0	0.2	0.9	0.2	11.2	11.3	11.9	13.0	15.3	19.7	11.2	1.8	1.9	1.9	2.1	2.8	3.2	1.7	
유틸리티	-3.7	-14.9	-11.8	-10.2	-10.5	-0.0	0.0	-0.4	-0.8	-0.8	9.2	9.6	10.9	10.1	9.6	11.0	6.5	0.8	0.9	1.0	0.9	1.0	1.1	0.7	
인도	-1.2	0.9	9.6	-3.6	-5.5	0.0	0.1	0.2	0.6	0.4	19.8	19.9	20.0	18.7	23.2	24.5	18.7	2.9	2.9	2.9	2.8	3.4	4.0	2.8	
에너지	-2.1	-2.2	-2.8	-10.2	-14.4	0.0	-0.2	0.3	0.4	0.8	14.6	14.8	14.6	15.8	17.4	24.8	12.6	1.5	1.5	1.5	1.5	1.8	2.9	1.4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소재, 에너지, 산업재
소재	-3.4	-5.0	9.9	7.9	1.9	0.1	0.7	1.0	2.1	1.5	15.6	15.9	18.3	16.8	21.5	22.6	15.6	2.5	2.5	2.8	2.5	2.8	3.1	2.3	
산업재	-2.3	1.2	22.7	12.5	11.5	0.0	0.0	0.0	0.2	0.0	36.4	36.9	36.3	29.7	34.8	42.1	27.7	7.0	7.3	7.0	6.0	7.0	8.8	4.9	
자유소비재	-1.3	2.3	12.3	1.8	-6.3	0.0	0.0	-0.3	0.0	-0.4	30.4	30.6	29.7	25.1	30.2	35.0	24.9	5.0	5.0	4.8	4.4	4.9	7.0	4.2	
필수소비재	-0.5	-0.4	8.6	-5.8	-7.4	-0.0	-0.1	-1.1	0.5	0.4	34.7	34.6	34.2	22.9	44.2	56.5	22.6	8.9	8.9	9.1	8.4	9.7	12.1	8.2	
건강관리	1.8	5.3	12.6	8.3	10.2	0.0	0.0	-0.0	0.1	0.0	33.4	33.0	32.2	29.5	32.0	34.2	22.2	4.7	4.6	4.5	4.3	4.8	5.5	3.9	
금융	0.3	5.5	13.4	-4.8	-5.9	0.0	0.0	0.3	0.4	0.3	15.7	15.5	15.0	14.4	17.7	22.2	14.4	2.1	2.1	2.0	1.9	2.6	3.3	1.9	
정보기술	-2.5	-8.7	-11.3	-33.0	-31.1	-0.1	-0.1	0.1	0.6	0.5	14.8	14.6	16.0	16.9	24.3	31.6	14.6	4.2	4.2	4.6	4.9	6.7	9.7	4.2	
커뮤니케이션	-3.7	-0.2	6.2	-6.3	-10.3	0.0	-0.0	0.3	1.0	0.7	29.3	30.2	29.2	30.6	45.0	82.9	28.6	5.7	6.0	5.8	7.4	10.0	19.6	4.6	
유틸리티	-2.4	-4.4	5.8	5.4	11.2	0.0	0.0	0.1	0.1	0.1	16.6	16.9	17.4	15.9	16.0	21.9	12.1	2.1	2.2	2.3	2.1	2.2	3.1	1.5	
브라질	0.5	-2.9	-8.6	20.9	8.4	-0.0	-0.2	0.6	2.5	2.7	8.2	8.1	8.3	9.4	8.5	10.9	6.8	1.6	1.5	1.6	1.7	1.4	1.8	1.1	
에너지	-3.7	-12.1	-20.7	31.0	34.1	-0.1	-1.3	2.2	7.4	10.5	4.3	4.5	4.7	6.0	4.9	7.6	4.0	1.0	1.0	1.1	1.3	0.9	4.6	0.7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건강관리, 소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소재	-1.7	-8.0	-5.8	41.0	9.7	0.0	0.5	-0.3	0.7	1.4	7.7	7.8	8.6	7.9	5.7	9.1	5.0	1.4	1.4	1.5	1.3	0.9	1.7	0.8	
산업재	2.2	2.6	-5.5	8.8	0.1	0.0	-0.1	0.0	0.9	0.7	16.8	16.3	15.9	17.7	17.8	26.0	15.0	1.8	1.7	1.8	1.7	1.8	3.9	1.4	
자유소비재	2.2	-1.3	-5.7	51.0	27.9	-0.0	0.3	2.5	3.9	3.4	9.3	9.2	9.8	13.0	9.8	16.3	6.6	1.4	1.4	1.6	1.7	1.1	1.9	0.8	
필수소비재	1.3	-2.2	-10.4	11.0	3.2	0.0	-0.3	-0.4	-0.7	0.2	14.8	14.5	14.3	15.6	12.0	18.5	10.7	2.4	2.4	2.5	2.6	2.3	2.8	1.7	
건강관리	0.9	-0.5	-10.3	3.2	-9.7	0.0	-0.0	0.3	1.2	0.2	14.3	14.2	14.3	16.5	16.8	27.3	10.8	3.3	3.3	3.4	4.0	2.7	4.5	0.7	
금융	3.0	0.1	-5.8	10.8	0.9	-0.0	-0.2	0.4	2.1	1.2	8.8	8.5	8.6	9.6	9.7	11.2	6.6	1.9	1.8	1.8	2.0	1.9	2.3	1.1	
정보기술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7.9	18.0	16.4	18.0	24.9	26.6	15.0	3.6	3.6	3.2	3.5	4.7	5.0	2.3	
커뮤니케이션	0.1	-0.6	-15.0	15.2	12.6	0.0	-0.1	0.6	2.1	1.4	11.9	11.7	11.7	14.7	13.5	15.7	10.4	1.9	1.9	1.8	2.2	1.8	2.5	1.0	
유틸리티	2.9	2.1	-3.6	42.6	15.4	-0.0	-0.7	-0.1	2.0	0.9	12.9	12.4	11.5	13.2	12.2	14.5	8.6	1.7	1.6	1.4	1.5	1.2	1.8	0.9	

글로벌 스타일별 추이

(단위 : %, 밸류에이션 지표 제외)

	종가추이					EPS					PER(12M fwd)						PBR(12M fwd)						Comment		
	1W (%)	1M (%)	3M (%)	1Y (%)	YTD (%)	1W (%)	1M (%)	3M (%)	1Y (%)	YTD (%)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3년간)	최소 (3년간)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3년간)	최소 (3년간)
세계	0.8	-1.5	12.5	19.0	8.1	0.0	0.1	0.4	1.1	0.7	18.7	18.9	19.6	18.1	19.9	20.7	15.5	3.6	3.6	3.7	3.3	3.3	3.7	2.5	
대형주	0.7	-1.7	13.0	19.7	8.0	0.0	0.1	0.4	1.1	0.7	19.0	19.2	19.9	18.4	20.4	21.4	15.8	3.9	3.9	4.0	3.6	3.6	4.1	2.7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가치
중형주	1.2	-0.4	9.9	14.7	8.7	0.0	0.1	0.2	0.8	0.4	17.4	17.3	17.7	16.5	17.5	18.1	13.9	2.4	2.3	2.4	2.2	2.2	2.4	1.7	
소형주	1.6	0.9	13.9	27.5	15.0	0.0	0.1	0.4	1.3	0.8	16.9	16.7	17.0	16.0	16.9	18.0	13.2	1.7	1.7	1.7	1.6	1.5	1.8	1.1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중형주
성장	1.0	-2.6	16.9	19.0	6.9	0.0	0.0	0.3	0.9	0.5	25.0	25.2	26.3	23.5	27.7	28.8	21.9	6.6	6.7	6.9	5.9	6.8	7.2	4.8	
가치	0.6	-0.4	8.6	18.6	9.4	0.1	0.2	0.5	1.1	0.9	15.0	15.1	15.6	15.0	15.2	16.6	11.7	2.4	2.4	2.5	2.3	2.1	2.5	1.6	
미국	-0.4	-1.8	13.7	19.8	8.5	0.1	0.1	0.4	1.2	0.7	20.0	20.2	21.1	19.3	22.1	22.9	17.2	4.5	4.6	4.7	4.2	4.5	4.8	3.3	
대형주	0.9	-2.1	13.9	20.4	8.3	0.1	0.1	0.4	1.2	0.8	20.2	20.5	21.4	19.6	22.6	23.6	17.6	4.9	5.0	5.1	4.6	4.9	5.2	3.6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가치
중형주	1.7	0.6	12.5	15.5	10.3	0.0	0.2	0.3	0.9	0.4	18.7	18.5	19.3	17.7	19.4	20.2	14.9	2.9	2.9	3.1	2.8	2.9	3.1	2.2	
소형주	2.3	3.4	16.9	34.8	19.9	0.0	0.1	0.5	1.5	0.9	18.2	17.9	18.1	17.2	18.6	21.1	14.8	2.1	2.1	2.1	1.9	1.8	2.2	1.4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성장
성장	1.3	-3.3	18.3	21.5	6.8	0.0	-0.0	0.3	0.9	0.5	26.7	27.0	28.1	24.8	30.3	31.5	23.0	9.2	9.3	9.5	8.2	9.6	10.4	6.3	
가치	0.7	-0.2	9.6	17.3	10.2	0.1	0.3	0.6	1.3	1.0	16.0	16.1	16.9	16.2	17.0	18.0	13.1	3.0	3.0	3.2	2.9	2.8	3.2	2.1	
일본	-0.7	1.2	16.0	41.9	18.4	0.0	0.3	0.6	1.4	0.9	17.3	17.4	18.1	16.5	16.0	19.1	12.3	1.9	1.9	1.9	1.7	1.5	2.0	1.1	
대형주	-0.9	1.8	19.2	45.5	20.3	-0.0	0.3	0.6	1.3	0.9	17.9	18.1	18.6	16.8	16.1	19.4	12.3	2.0	2.1	2.1	1.8	1.6	2.2	1.2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중형주
중형주	-0.1	-0.6	7.4	32.5	13.0	0.0	0.3	0.6	1.6	0.8	15.6	15.7	16.6	15.9	15.6	18.7	11.4	1.4	1.4	1.5	1.4	1.2	1.7	1.0	
소형주	1.3	-0.0	12.6	26.0	15.4	0.0	0.2	0.5	0.7	0.7	15.6	15.5	16.0	15.0	14.0	17.4	11.6	1.4	1.3	1.4	1.2	1.1	1.4	0.9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대형주
성장	-0.7	3.5	23.3	38.0	22.1	0.0	0.5	0.8	1.2	1.1	22.1	22.3	24.1	22.0	22.0	25.8	16.4	3.3	3.4	3.2	2.8	2.7	3.5	1.9	
가치	-0.7	-1.1	9.4	46.0	14.8	0.0	0.2	0.4	1.6	0.7	14.0	14.2	14.6	13.6	12.3	15.7	9.9	1.3	1.3	1.4	1.3	1.0	1.4	0.8	
유럽	0.4	2.0	9.5	17.8	7.8	0.0	0.1	0.3	0.8	0.5	15.3	15.2	15.1	14.6	14.8	16.3	11.6	2.3	2.3	2.2	2.1	2.0	2.3	1.6	
대형주	0.4	2.3	10.0	18.3	7.9	0.0	0.1	0.3	0.9	0.6	15.3	15.3	15.2	14.7	14.9	16.6	11.6	2.4	2.4	2.3	2.2	2.1	2.4	1.7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성장
중형주	0.0	0.5	7.0	15.6	7.4	0.0	-0.2	-0.0	0.5	0.2	14.9	14.9	14.5	13.9	14.1	15.1	12.1	2.0	2.0	1.9	1.8	1.7	2.0	1.4	
소형주	-2.2	-5.7	5.5	4.1	0.3	-0.0	-0.1	0.1	0.4	0.1	13.9	13.9	14.6	13.2	14.0	14.9	10.6	1.5	1.5	1.6	1.4	1.5	1.6	0.4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소형주
성장	0.5	1.7	12.4	12.6	7.5	0.0	0.2	0.3	0.7	0.5	20.8	20.8	21.3	19.8	21.6	25.1	18.8	3.7	3.7	3.9	3.5	3.8	4.4	3.4	
가치	0.2	2.3	6.8	23.3	8.1	0.0	0.1	0.4	1.0	0.8	12.0	12.0	11.8	11.8	11.2	13.0	8.6	1.6	1.6	1.6	1.5	1.3	1.6	1.1	

Global Asset Fund Flow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Weekly Flows (ETF+non ETF)		ETF Only		% of Asset (ETF+non ETF)			Comment
			최근1주	10주평균	최근1주	10주평균	최근1주	10주평균	Assets	
주식	선진국	Global	14,360.87	12,737.05	15,060.75	13,640.12	0.19	0.17	7,595,8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주 글로벌 자금 흐름은 선진국 주식, 선진국 채권, 신흥국 채권 위주 유입 흐름 전개 • 선진국 주식형 펀드는 11주 연속 유입세 지속 • 선진국 채권형 펀드는 22주 연속 유입세 지속 • 신흥국 채권형 펀드는 2주 연속 유입세 지속
		NorthAm	(7,782.33)	24,177.55	258.06	33,370.50	(0.05)	0.15	16,718,920	
		W.Europe	(1,293.93)	(1,944.29)	723.66	(583.83)	(0.06)	(0.09)	2,065,570	
		Asia Pacific	782.54	(109.28)	903.31	148.88	0.06	(0.01)	1,336,968	
		선진국 합	6,067.15	34,861.03	16,945.79	46,575.67	0.02	0.13	27,717,298	
	신흥국	GEM	(507.91)	(842.28)	2,178.57	750.56	(0.04)	(0.06)	1,407,804	
		Asia ex-JP	(10,329.21)	(9,592.98)	(9,796.12)	(8,562.76)	(0.67)	(0.65)	1,492,664	
		EMEA	82.62	23.86	52.73	(1.72)	0.17	0.05	47,971	
		LatAm	(304.99)	(115.81)	(270.25)	(79.95)	(0.50)	(0.20)	58,562	
		신흥국 합	(11,059.48)	(10,527.22)	(7,835.08)	(7,893.87)	(0.36)	(0.35)	3,007,000	
채권	선진국	Global	3,510.23	3,277.11	844.32	1,117.37	0.26	0.25	1,313,330	
		NorthAm	10,946.71	15,256.77	8,958.40	12,526.92	0.19	0.28	5,640,309	
		W.Europe	(1,361.23)	2,117.83	887.24	1,221.88	(0.07)	0.11	1,991,533	
		Asia Pacific	278.88	134.93	147.16	123.35	0.38	0.18	72,928	
		선진국 합	13,374.59	20,786.64	10,837.12	14,989.52	0.15	0.23	9,018,100	
	신흥국	GEM	601.32	969.63	455.77	183.81	0.15	0.25	389,365	
		Asia ex-JP	2,729.47	1,564.50	2,960.47	1,555.84	1.05	0.62	259,916	
		EMEA	(138.66)	182.63	91.98	146.66	(0.29)	0.40	46,964	
		LatAm	28.13	145.39	41.20	146.09	0.17	0.90	16,713	
		신흥국 합	3,220.26	2,862.15	3,549.43	2,032.40	0.45	0.41	712,958	

자료: EPFR, 하나증권

글로벌 ETF 시장의 지역별 자금 흐름 점검

글로벌 수급: 지역별 차별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ETF 시장의 확장 기조 지속

- 북미지역 주식형 ETF 시장의 자금 흐름이 크게 약화되었으나, 글로벌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으로 +150.6억달러의 매수세 유입이 진행되었고, 신흥국 주식형 ETF 시장에서는 아시아 중심의 자금 유출 영향으로 -78.4억달러가 순유출
- 글로벌 채권형 ETF 시장의 경우 북미 지역 채권형 ETF 시장의 자금 유입 규모가 소폭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난 가운데, 신흥국 채권형 ETF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재개되면서 총 +143.9억달러가 순유입

글로벌 ETF 주요 지역별 자금 흐름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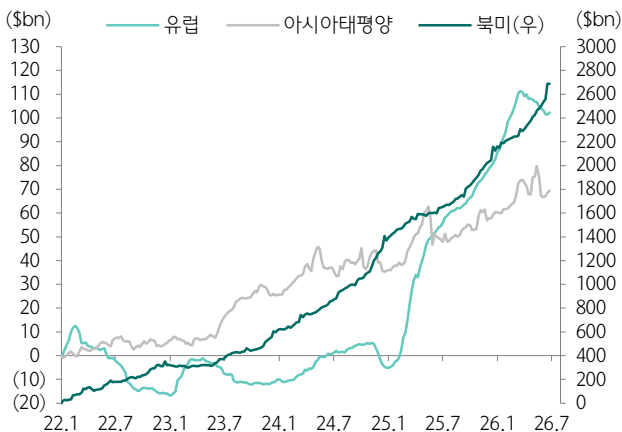
자산	지역 구분	세부 지역	Net Flows (\$MM)				총자산 (\$MM)	유입강도 (%)	
			1주전	2주전	3주전	4주전			
주식 ETF	선진시장	글로벌	15,061	16,302	13,614	18,038	2,929,899	0.51	
		북미	258	129,203	26,081	32,690	11,285,533	0.00	
		서유럽	724	(88)	(1,776)	(692)	616,524	0.11	
		아시아 태평양	903	1,505	362	(643)	1,005,028	0.09	
	선진시장 Total			16,946	146,921	38,280	49,393	15,836,983	0.11
	신흥시장	글로벌 신흥	2,179	1,064	(86)	(388)	699,702	0.31	
		신흥아시아	(9,796)	(8,024)	9,134	(9,199)	1,144,235	(0.83)	
		EMEA	53	88	27	9	16,310	0.31	
		남미	(270)	(185)	(515)	(180)	45,819	(0.57)	
	신흥시장 Total			(7,835)	(7,058)	8,561	(9,759)	1,906,066	(0.40)
주식 ETF Total			9,111	139,864	46,841	39,635	17,743,049	0.05	
채권 ETF	선진시장	글로벌	844	218	83	1,407	218,897	0.39	
		북미	8,958	14,532	13,519	17,059	2,774,104	0.32	
		서유럽	887	1,396	403	2,462	330,693	0.26	
		아시아 태평양	147	88	188	3	24,239	0.60	
	선진시장 Total			10,837	16,234	14,192	20,930	3,347,933	0.32
	신흥시장	글로벌 신흥	456	201	(480)	500	76,707	0.59	
		신흥아시아	2,960	(386)	872	4,229	155,215	1.92	
		EMEA	92	46	95	175	5,074	1.80	
		남미	41	61	74	112	7,246	0.56	
	신흥시장 Total			3,549	(77)	560	5,015	244,242	1.46
채권 ETF Total			14,387	16,156	14,752	25,946	3,592,176	0.40	

주1. 기준일: 26.6.24

주2. 유입강도(%)는 주간 유입액/ 전주말 총자산 x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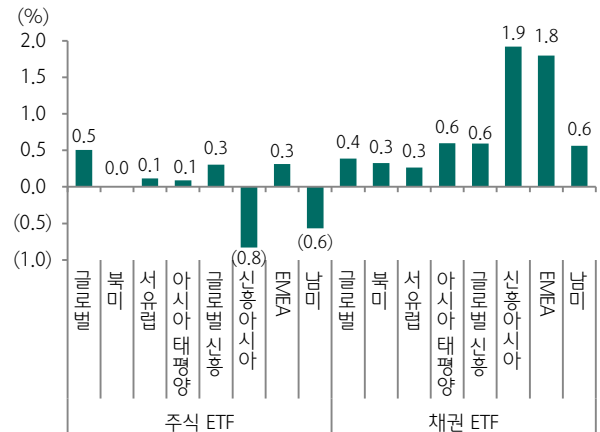
자료: EPFR, 하나증권

2022년 이후 지역별 누적자산 유입현황



자료: EPFR, 하나증권

주식 & 채권 ETF 지역별 주간 자금 흐름 유입 강도



자료: EPFR, 하나증권

주간 추천 글로벌 ETF 리스트

Investment Point: 하반기 진입 + 휴장일 영향의 단기 변동성 염두. 실적 기반의 포지션 유지. SMH/DRAM, PAVE/AIRR, KBWB 등 활용

- ETF Hyperscalers 기업들의 Capex 투자 확대와 AI 산업 성장의 단순한 스토리 하에서 병목현상과 실적 기반의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SMH/SOXX/DRAM(반도체), ZAP/POWR(전력), URA/NLR(원전)의 중장기 포지션을 중심으로 유지해야 하겠으나, 수급 기반의 등락 반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 액티브 운용 방식을 통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CHAT/BAI(AI 액티브) 역시 실적 모멘텀 기반의 투자 고려 대상 주목군. 수급 이동 과정에서 조정이 나타난다면 포지션 확장 기회로 활용할 필요
- 투자 중심의 경제 사이클과 트럼프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글로벌 경쟁 구도 하에서 투자 모멘텀이 유효한 PAVE(인프라)와 AIRR(중소형 제조업), XLI(산업재)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는 한편, 연준 정책 인식 변화 및 순환매 가능성과 대형 IB 딜의 증가 흐름을 고려한 KBWB(대형 은행)의 편입도 생각해 볼만한 시점
- 국면의 특성상 커버드콜 액티브 ETF인 DMO/QDVO 역시 포트폴리오 구성 관점에서 적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분류	종목코드 (ETF명)	기초자산	투자포인트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절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주식형	SMH (VanEck Semiconductor ETF)	글로벌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재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2025년 11월 24일	339.12 / 631.98	86.36% / 72.52%
주식형	DRAM (Roundhill Memory ETF)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혁명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밸류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 순수 메모리 테마 ETF 광범위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차세대 DRAM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제조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차별화된 고성능 모멘텀 수혜 기대 	2026년 6월 22일	80.72 / 71.94	-10.88% / -8.66%
주식형	AIRR (First Trust RBA American Industrial Renaissance ETF)	미국 중소형 산업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75% 이상) 중소형 제조업 및 산업재 관련 기업들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미국 제조업 부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ETF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현상 가속화와 관세 구조 변화 등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 하에서 실질적인 인프라 건설, 기계, 엔지니어링 밸류체인의 수혜 기대 	2026년 6월 22일	133.25 / 131.58	-1.25% / 0.96%
주식형	SPHQ (Invesco S&P 500 Quality ETF)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탈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2026년 3월 23일	75.80 / 88.80	17.15% / 6.35%
주식형	MADE (iShares US Manufacturing ETF)	미국 제조업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2025년 10월 27일	30.66 / 38.57	25.80% / 15.00%
주식형	PAVE (Global X 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F)	미국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쇼어링은 양당 모두 선호하는 방향성. 품목별 관세의 연속성 고려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꾸준히 증가 전망 	2025년 11월 24일	46.98 / 58.60	24.73% / 10.89%
주식형	QGRO (American Century US Quality Growth)	미국 퀄리티 성장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성과 퀄리티를 함께 갖춘 중대형주로 구성된 ETF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성장 모멘텀에 대한 관심 증가. 펀더멘탈 퀄리티에 대한 해석이 변화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견고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며 상대 우위 보여줄 전망 	2024년 1월 5일	73.83 / 117.15	58.68% / 7.03%
채권형	VCIT (Vanguard Intermediate-Term Corporate Bond ETF)	미국 중기 회사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10년 만기의 투자등급 회사채로 구성된 중기 회사채 ETF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압박. 연내 금리인하 폭에 대한 고민이 채권시장의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 존재하나, 연착륙 기대 동반되며 회사채 스프레드 지지 전망 	2024년 8월 30일	82.74 / 82.96	0.27% / -32.57%

주1) 기준가는 편입일 전일 종가(미국 주식은 D-1일. 중국/일본 주식은 D일), 주간 단위로 종목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0%선 적용
 주2)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미국(USD)
 주3) 상대수익률은 벤치마크(BM)지수 대비 수익률을 의미. 주식형 BM은 MSCI AC World Index, 채권형 BM은 Bloomberg Barclays Global Aggregate Bond Index TR, 리츠 BM은 Bloomberg REIT Index, 대체투자 BM은 S&P CSCI Index 적용

투자유망종목

Investment Point: 7월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 진입으로 이익 모멘텀에 따른 주가 민감도 높아질 전망. AI, 반도체 긍정적 전망 유지

- 글로벌 증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기술주 반등에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된 가운데 상승 흐름. 마이크로 호실적으로 건조한 반도체 업황을 확인했음에도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비용 압박 우려가 높아진 점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 글로벌 긴축 국면으로 고금리 여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7월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 진입하면서 이익 모멘텀에 따른 주가 민감도 높아질 전망.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와 AI 인프라 관련주에 대한 관심 유효. 투자유망종목은 램리서치(LRCX.US), 비런테크(6082.HK), 즈푸AI(2513.HK) 신규 편입

* 차주 실적 발표 예정 기업: -

종목	종목코드	국가	업종	시가총액 (조원)	편입일	편입 기준가	전일 종가	절대 수익률	상대 수익률
알파벳	GOOGL.US	미국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3,643	3/10	306.36	353.45	15.37%	5.8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US	미국	정보기술	1,992	1/6	312.15	1145.28	266.90%	258.70%
AMD	AMD.US	미국	정보기술	1,354	5/26	467.51	539.28	15.35%	15.87%
램 리서치	LRCX.US	미국	정보기술	791	6/30	410.91	신규	-	-
캐터필러	CAT.US	미국	산업재	732	1/6	616.10	1033.19	67.70%	63.93%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CRWD.US	미국	정보기술	291	3/10	434.13	742.56	71.05%	61.56%
블룸 에너지	BE.US	미국	산업재	120	1/6	103.87	851.47	16.81%	3.87%
루멘텀 홀딩스	LITE.US	미국	정보기술	102	3/24	728.95	275.01	164.76%	156.56%
즈푸시	2513.HK	중국	IT 서비스	185	6/30	2104.00	신규	-	-
비런테크	6082.HK	중국	반도체	29	6/30	61.20	신규	-	-

주1) 기준가는 편입일 전일 종가(미국/유럽 주식은 D-1일, 중국/홍콩 주식은 D일), 주간 단위로 종목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주2)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미국(USD), 유럽(EUR), 중국(RMB), 홍콩(HKD)

주3) 상대수익률은 각 종목별 편입일 기준 벤치마크(BM) 지수 대비 수익률을 의미. BM은 MSCI AC World Index

- ✓ 글로벌 투자유망종목 제외종목: 모건스탠리(종목 교체, 4/21~6/29, +11.02%), 폭스콘산업인터넷(종목 교체, 5/26~6/29, -0.53%)
사원전기(종목 교체, 5/19~6/29, -10.82%)

알파벳 (GOOGL.US)**AI 포트폴리오 확대로 주력 상품 & 서비스 수요 강세**

국가	미국
업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가총액(조원)	3,643
편입일	3월 10일
EPS증감률(2026E)	+29.0%
PER(2026E)	28.70
PBR(2026E)	8.50

- **Investment point**
1QFY26 Review 매출액 1,099억 달러(YoY +21.8%), EPS 5.11 달러 기록
AI는 수익성 높은 검색광고와 핵심 전략 사업부인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 이끌어
FY2026 가이드선 CapEx 중간값 1,850억 달러로 기존 1,800억 달러에서 상향 조정
- **Risk**
AI 수익성 부진으로 AI CapEx 둔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US)**DRAM, NAND 등 메모리 제품 포트폴리오 사업 영위**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1,992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률(2025E)	-
PER(2025E)	76.60
PBR(2025E)	2.30

- **Investment point**
3QFY26 매출액 414.6억 달러(YoY +346%), Non-GAAP EPS 25.11 달러(YoY +1,215%) 기록
DRAM과 NAND 가격 전분기 대비 각각 60% 초반, 80% 중반 상승하며 서프라이즈 실적에 기여
4QFY26 가이드선 매출액 490~510억 달러, GPM 86%, EPS 30~32달러 제시
- **Risk**
전방 수요 약화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세 둔화

AMD (AMD.US)**CPU, GPU, APU, DPU 등 사업 영위하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1,354
편입일	5월 26일
EPS증감률(2026E)	+96.9%
PER(2026E)	48.16
PBR(2026E)	9.88

- **Investment point**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서버 CPU TAM 2030년까지 2,110억 달러 규모 전망
TSMC 2나노 공정 활용한 차세대 CPU 생산 확대하고 대만 AI 부문에 100억 달러 규모 투자 감행
올해 1분기 서버용 x86 CPU 부문에서 매출 기준 점유율 46.2%로 YoY +6.8%p, QoQ +4.9%p
- **Risk**
빅테크의 CapEx 투자 둔화 및 AI 수익화 부진에 GPU, CPU TAM 축소

램 리서치 (LRCX.US)**식각, 증착, 세정 등 반도체 웨이퍼 제조 장비 사업 영위**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791
편입일	6월 30일
EPS증감률(2026E)	+36.5%
PER(2026E)	72.7
PBR(2026E)	44.8

- **Investment point**
1QFY26 매출액 58.4억 달러(YoY +24%), Non-GAAP EPS 1.47달러(YoY +41%) 기록
6월 분기 매출 가이드선 66억 달러 제시,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DRAM-HBM-첨단 패키징 장비 투자 수혜 기대
식각-증착 장비 경쟁력 기반으로 선단공정 미세화 및 3D NAND 고단화 투자 확대 시 수혜 가능
- **Risk**
메모리-파운드리 CapEx 투자 사이클 둔화 및 AI 반도체 투자 과열 우려 시 밸류에이션 부담 확대

캐터필러 (CAT.US)**건설 및 광산 장비, 오프로드 엔진, 산업용 가스터빈 등 사업 영위**

국가	미국
업종	산업재
시가총액(조원)	732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률(2026E)	+27.4%
PER(2026E)	37.0
PBR(2026E)	20.1

- **Investment point**
1QFY26 매출액 174억 달러(YoY +22%), OPM 17.7%, EPS 5.54 달러(YoY +30.4%) 기록
데이터센터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대형 엔진과 터빈 수요로 전력 부분 +41% 성장
수주잔고 6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9% 성장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
- **Risk**
AI 투자 및 리쇼어링 수요 감소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CRWD.US)**엔드포인트, 클라우드 워크로드, 신원 및 데이터에 대한 클라우드 제공 보호 서비스 제공**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291
편입일	3월 10일
EPS증감율(2026E)	30.19
PER(2026E)	89.40
PBR(2026E)	19.38

- **Investment point**
4분기 순신규 ARR 3.3억 달러, FY2027 순신규 ARR 가이드스 23% 성장 전망
성장 동력 부문인 클라우드 보안, 차세대 아이덴티티, 차세대 SIEM 부문이 고성장 견인
모든 에이전트 통제하고 방대한 데이터 활용하는 통합 보안 플랫폼으로서 보안 시장 점유율 확대 전망
- **Risk**
AI 기술 개발로 인한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대체 우려 확대

블룸 에너지 (BE.US)**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시스템과 전해조 개발, 제조, 판매 기업**

국가	미국
업종	산업재
시가총액(조원)	120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6E)	+177.6%
PER(2026E)	123.5
PBR(2026E)	55.0

- **Investment point**
1QFY26 매출액 7.51억 달러(YoY +130.4%), EPS 0.44 달러(YoY +1,366.7%)로 컨센서스 대폭 상회
온사이트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블룸 에너지의 에너지 서버가 디지털 시대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며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
최근 데이터센터 관련 서비스 계약 평균 10~15년으로 기존의 6~7년 대비 증가
- **Risk**
타 전력 발전원 공급 병목 완화에 다른 SOFC 수요 둔화

루멘텀 홀딩스 (LITE.US)**광학 및 포토닉스 분야에서 기술력 보유한 기업**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102
편입일	3월 23일
EPS증감율(2026E)	+298.0%
PER(2026E)	110.2
PBR(2026E)	24.9

- **Investment point**
스케일 어크로스 시장 통해 새로운 성장 아이템 추가, 트랜시버가 강한 수요 바탕으로 성장 가속화
스케일 어크로스 시장에 Pump Laser, Narrow linewidth laser assembly, WSS를 핵심 제품으로 공급
스케일 어크로스향 제품 병목 심화에 따라 해당 제품들의 마진 개선
- **Risk**
구리선 교체수요 둔화로 인한 CPO 기대감 약화

즈푸시 (2513.HK)**중국 LLM 국산화 수요 확대 속 핵심 기업으로 부상**

국가	중국
업종	IT 서비스 및 컨설팅
시가총액(조원)	185
편입일	6월 30일
EPS증감율(2026E)	-
PER(2026E)	-
PBR(2026E)	-113.48

- **Investment point**
• 자체 개발 LLM의 코딩 및 에이전트 성능 개선과 국산 AI칩 최적화를 바탕으로 중국 프런티어 모델 시장 내 기술 경쟁력 강화
• 클라우드 API 사용량 증가로 모델 상용화 및 매출 성장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Risk**
높은 밸류에이션, LLM 경쟁 심화

비렌테크 (6082.HK)**GPU 부족 속 안정적인 공급 역량 확보한 Biren이 부각**

국가	중국
업종	반도체
시가총액(조원)	29
편입일	6월 30일
EPS증감율(2026E)	-
PER(2026E)	-
PBR(2026E)	-6.23

- **Investment point**
• 중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대규모 구매 물량을 감안할 때 수백 장 이상의 카드 단위로 납품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
• Biren의 총재고는 2025년 말 기준 9.5억위안까지 증가, 대규모 출하가 지속 가능할 것으로 예상
- **Risk**
매출 변동성, 흑자 전환 시점 지연

산업 Issue

2026년 6월 24일 | 글로벌 리서치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트럼프의 울며 겨자(풍력) 먹기

‘풍력발전 금지 행정명령 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 신청 철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풍력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으나 최근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과거 2000년대 초반부터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던 스코틀랜드 앞바다에 해상 풍력단지가 추진되자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 풍력을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2기 취임 첫날인 2025년 1월, 연방 영해 내의 신규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무기한 금지했으며 기존 프로젝트에도 작업 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2025년 12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며 트럼프는 항소했으나, 6월 10일 다시 항소를 자진취하하게 된다. 트럼프의 개인적 선호에 따라 특정 에너지원을 편애할 수 없는 상황에 도래했으며 최근 글로벌 에너지 기조인 Energy Expansion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다.

미국에서 풍력의 입지

2025년 미국은 풍력 발전으로 464,000GWh(YoY +3%)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이는 전체 전력 생산 비중의 약 10%에 해당한다. 다만 지리적 특성의 차이로 해상 풍력이 발달한 유럽과 달리 미국은 대부분이 텍사스, 뉴멕시코 등 내륙 지역의 육상풍력이며 해상풍력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Coastal Virginia Offshore Wind(CVOW) 프로젝트는 미국 최대 규모(2.6GW)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이며 총 176기의 지멘스가메사 14.7MW급 터빈을 사용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CVOW 프로젝트에 전면 공사 중단을 명령한 이후 개발사인 도미니언 에너지는 연방법원에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도미니언 에너지의 손을 들어주었고 2027년 초 완공을 앞두고 있다.

태양광은 Section 232가 예상보다 늦어져

트럼프가 신재생 내에서 풍력보다 선호했던 태양광의 경우 Section 232가 이르면 6월 중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시점이 최근 시점이 8월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비중국 밸류체인인 가격 상승이라는 투자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나 단기적センチ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풍력은 OBBBA 안에서 태양광보다도 찬밥 신세였다. 45X 태양광 부품의 세액공제는 2030년까지 완만히 감소하는 반면 풍력 터빈과 해상풍력 부품은 2027년부터 전면 중단했다. 이번 트럼프의 항소 취하는 신재생 섹터 내에서 주목해볼 만한 지각 변동이다.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하반기 중국 반도체 업종 투자전략

중국 반도체 | 2026.6.26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업종/기업 선호도와 투자포인트

팹리스>장비>후공정>파운드리 순

- 2026년 하반기 중국 반도체 업종은 팹리스>장비>후공정>파운드리 순으로 투자 매력이 높다. 중국 내 강한 AI 칩 수요가 로컬 AI 칩 팹리스 기업 수주로 반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캄브리콘, 비렌테크, 일루바타 코어엑스 등 상위 AI 칩 스타트업들은 2026년 이후에도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 또한, 중국의 공격적인 메모리(CXMT/YMTC) 및 로직(SMIC/화웨이/화홍) 반도체 증설과 공급망 국산화로 인해 반도체 장비 제조사인 북방화창/AMEC, 첨단 패키징 기술을 보유한 후공정 기업 JCET에 대한 강한 수주도 기대된다.
- 반면, 파운드리 기업인 SMIC와 화홍반도체는 올해 연초 이후 주가 급등에 따른 고밸류 부담이 상존하는 가운데 대규모 증설로 마진 개선이 제한되고 있어 하반기 관점에서 투자 매력은 낮은 상황이다.

팹리스: 캄브리콘과 홍콩 상장 스타트업 추천

- 하반기 중국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 중에서는 선도기업인 캄브리콘과 더불어 신규 홍콩 상장 스타트업 기업인 비렌테크와 일루바타 코어엑스를 추천한다. 중국 본토 과장판 상장주인 무어스레드와 메타엑스는 2027년 예상 PSR이 각각 61배, 51배로 중국 Peer 평균 26배 대비 2배 이상 고평가되어 있어 단기 투자 매력은 높지 않다.
- 캄브리콘은 하반기 차세대 AI 칩 양산을 통해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중국 내 강한 AI 반도체 수요와 국산화의 대표적인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다. 캄브리콘의 차세대 칩인 MLU580은 올해 3분기부터 대량 출하가 예상되며, MLU690은 4분기 출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중국 주요 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수주로 인해 YoY 500% 이상의 순이익 성장을 시현한 캄브리콘은 2026년/27년에도 160%/80%의 가파른 순이익 성장세가 전망된다.
- 현재 중국의 로컬 AI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전체 수요의 약 50% 수준만 충족 가능한 수준으로 추정되며, 중국의 제한적인 첨단 반도체 생산역력, 중국 정부의 미국산 AI 칩 수입 제한 조치로 인해 중국 AI 칩 부족 현상은 적어도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은 현재 조달 가능한 모든 AI 칩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으나, 대규모 물량 양산이 가능한 공급업체를 우선적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안정적인 공급 역량과 기술력을 확보한 비렌테크와 일루바타는 2026년 이후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파운드리: 화홍반도체보다 SMIC가 실적 기대감 높은 상황

- 파운드리 업종 내에서는 화홍반도체보다 SMIC의 실적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SMIC는 최근 분기 실적에서 ASP 상승과 AI 서버 관련 제품 수요 증가로 인해 시장 예상보다 양호한 수준의 마진율을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단기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경감되었다. 또한, 긍정적인 2분기 실적 가이던스로 추가적인 ASP 상승과 견조한 수요가 기대되고 있다. 다만, 지속적인 대규모 증설로 인해 향후 1~2년도 감가상각비 부담이 GPM 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주가에 부담 요인이 될 것이다.
- 반면, 화홍반도체는 1Q26 실적에서도 높은 감가상각 부담으로 인해 GPM(13%, QoQ flat) 개선세가 확인되지 않았다. 출하량과 ASP가 직전 분기 대비 크게 개선되지 못하면서 매출 성장률도 QoQ flat 수준에 머물렀다. 화홍반도체는 올해 하반기 화홍그룹 내 또 다른 파운드리 기업인 화리마이크로 인수를 통해 12인치 웨이퍼 팹 생산능력 확대, 7nm 선단공정 기술 확보가 기대되는 상황이나, 올해 연초 이후 A주/H주 주가가 206%/159% 급등한 만큼 화리마이크로 인수 관련 기대감은 주가에 이미 반영된 상태로 판단된다. 화홍반도체 A주/H주의 2027년 예상 PBR은 12배/6배로 2026~27년 ROE가 3~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주가 고평가 논란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2026년 6월 25일 | Global Equity

유니트리(비상장)

공격적인 저가 전략은 휴머노이드에서도 통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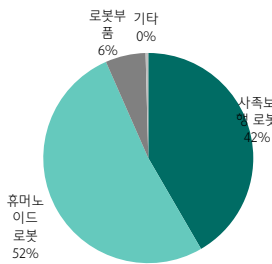
중국

TP(컨센서스) - CNY
CP - CNY

Key Data

국가	중국		
상장거래소	상하이 거래소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기계		
홈페이지	www.unitree.com		
시가총액(십억CNY)	-		
시가총액(조원)	-		
52주최고/최저(CNY)	-/-		
주요주주 지분율(%)			
Wang Xingxing	23.82		
Shanghai Yuji	10.94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	-	-
상대	-	-	-

매출구성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393	1,699	-	-
영업이익	101	368	-	-
순이익	95	278	-	-
EPS(CNY)	-	-	-	-
EPS(YoY, %)	-	-	-	-
ROE(%)	-	-	-	-
PER(배)	-	-	-	-
PBR(배)	-	-	-	-
배당률(%)	-	-	-	-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5,500대, 글로벌 1위의 압도적인 연간 출하량

춤 추는 로봇으로 잘 알려진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의 상장이 임박했다. 유니트리에서 2024년 출시한 중형 휴머노이드 로봇 G1은 9.9만위안부터 시작하는 가격 정책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격 장벽을 크게 낮췄다. 이에 따라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며 유니트리의 주력 제품으로 자리잡았으며, G1은 휴머노이드 시장의 대중화를 이끈 제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유니트리의 2025년 연간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은 5,500대로 글로벌 1위를 기록했고, 경영진은 2026년 출하량 가이드를 최대 2만대로 제시했다. 이는 2025년 약 1,000대로 추정되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 대비 약 5배 높은 수준이다. 현재 대다수의 중국 경쟁사 출하량은 1,000대 이하이며, 해외 기업의 경우, 테슬라와 Figure를 제외 하면 모두 시제품 개발, 소규모 납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휴머노이드 로봇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은 낮은 판매가로 꼽힌다.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로봇의 판매가가 유독 낮은 이유는 높은 수직 계열화를 달성했고 생산 규모를 확대하면서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유니트리는 일부 고사양 라이다와 Dexterous Hand만 외부 업체에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의 제조 공정을 내재화 했다.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로봇의 평균 ASP는 2023년 59.3만위안에서 2025년 16.6만위안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경쟁사 유비테크 휴머노이드 ASP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유니트리의 주력 휴머노이드 로봇인 G1의 매출총이익률은 67%로 추정되며 이는 유비테크 휴머노이드 사업부 매출총이익률인 55% 대비 높은 수준이다.

단기 조정순이익은 YoY 역성장, 중장기적으로는 실용성이 확대 기대

유니트리의 매출 규모는 지난 3년간 이미 CAGR 226%로 크게 확대되었고 향후 매출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1Q26 매출은 YoY +69% 증가에 그쳤고, 조정순이익은 YoY -53% 감소했다. 경영진은 2Q26 조정순이익은 연구개발비 증가와 판매비 지출 증가로 YoY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언급했다. 현재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큰 한계점은 실용성으로 꼽히고 있다.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로봇의 76%는 연구, 교육용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산업용 판매 비중은 약 9%로 유비테크(14%) 대비 낮다. 다만, 향후 5년간 유니트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 1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축적된 데이터와 AI 모델 성능 고도화를 기반으로 연구, 교육용 중심의 판매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HANA Global Weekly

Tel: 02-3771-사내번호 E-mail: @hanafn.com

이름	직책	담당분야	사내번호	E-mail
센터장				
황승택	센터장	리서치센터 총괄	7519	sthwang

글로벌투자분석실				
글로벌 매크로· 투자전략팀	이재만	실장	국내/선진국투자전략	7547 duke7594
	김경환	팀장	중국/신흥국전략	7616 khstyle11
	이경수	수석연구위원	Quant	7518 gang
	김근아	선임연구원	신흥국전략	7698 geunak
	이철현	선임연구원	Global Quant	7723 lch2678
	김성은	선임연구원	중국분석	7520 seongeunk
	손일수	연구원	국내/선진국투자전략 RA	3629 ilsooon
채널전략팀	김두연	팀장	국내외 주식시황	7509 kimdooun
	임승미	연구위원	포트폴리오	7786 seungmi_lim
	강윤형	선임연구원	포트폴리오	8024 kangyh
	박준우	선임연구원	시장대리인/포트폴리오 RA	8116 junwoo
	최욱	연구원	국내외 주식 시황 RA	7477 wookchoi

해외주식분석실				
	박승진	실장	글로벌 ETF	7761 sj81.park
	김재임	수석연구위원	선진국기업분석	7793 jamie
	백승혜	수석연구위원	중국기업분석	7521 sh_baek
	강재구	연구위원	선진국기업분석	3386 jaekoo.kang
	송예지	선임연구원	중국기업분석	8143 yeajisong
	김시현	선임연구원	미국/선진국기업분석	7513 sihyun_kim
	장치영	선임연구원	글로벌 ETF	3669 chiyoung.jang
	안기량	연구원	중국기업분석 RA	7736 giryangan
	송종원	연구원	선진국기업분석 RA	7261 1223sjw
	이재은	연구원	선진국기업분석 RA	3743 jaeunlee
	신민건	연구원	글로벌 ETF RA	3269 mingun.shin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